

## 자막 문장에 대한 몇 가지 생각

장진한 TV조선 보도본부 전문위원

### 1. 곳곳에 널려 있는 텔레비전

만일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자네 요즘 뭐 하고 사나?”라고 묻는다면, 나는 “요즘 나는 글자로 먹고 산다.”라고 답할 것이다. 예전 같으면 “글로 먹고 산다.”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글’과 ‘글자’는 어떻게 다른가. 우선 글은 쉼표와 마침표가 있다면 글자는 쉼표만 있다. 또 글은 명사와 동사가 있다면 글자는 명사만 있을 뿐이다. 자,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밝힐 차례다. 나는 이태 전 26년간의 신문교열자 생활을 마치고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겼다. 편집부 꼬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책상에 앉아 뉴스 아래에 붙이는 100여 개의 자막(방송국에서는 이것을 ‘티커’라 부른다)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자막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알고 보면 현대인은 자막과 함께 살고 있다. 광화문에 직장을 둔 A씨의 일상을 가정해 생각해 보자.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켜다. 화면 아래에는 앵커의 빠른 목소리와는 다른 별도의 뉴스가 흐른다. 비록 개수는 100여 개에 불과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 바퀴 도는 시간은 8분 정도. 아침이 분주한 그는 굳이 신문을 펼치지 않고도 이렇게 그날 하루에 대한 감을 잡는다.

그러나 자막은 그의 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파트 승강기 안에도 텔레비전이 달려 있다. 광화문 새문안교회 건너편에서 버스를 내려 광화문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면 동아일보 사옥 지붕에 있는 대형 전광판이 그의 시선을 가로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면 이제는 코리아나호텔 벽에 붙어 있는 조선일보 전광판이 있다. 이쯤 되면 그는 자막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자막이 현대인들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 2. 한국어에 대한 새로운 발견

내가 뉴스 자막을 만들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것 중 하나는, 우리말은 명사만으로도 소통이 되는 묘한 언어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텔레비전을 켜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뉴스 자막은 글자 수가 대개 25자 정도로 정해져 있다. 이보다 길면 시청자의 시선을 효과적으로 붙들지 못하고, 자막을 위아래로 흘리면 글자가 변형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막을 정리한 뒤 들여다보면 태반이 명사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지검장이 음란 행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라는 문장은 ‘제주지검장 음란 행위 혐의 현행범 체포 후 방면’처럼 만든다(2014년 8월 15일 A방송). 모두가 명사만으로 나열되어 있다. 어미나 접미사를 모두 잘라 버리고 명사(어근)만으로 문장을 만들었는데도 소통이 된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문장이다. 이 문장을 원칙대로 해석하면 ‘제주지검장은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현행범을 체

포한 후 방면했다'가 되기 때문이다. 즉, 음란행위를 한 것은 '제주지검장'인데, 표현된 자막에서 음란 행위를 한 자는 '현행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주지검장'이 음란 행위를 했다고 재빨리 받아들이고, 문장의 잘못을 눈치 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경우 성실한 자막 작성자라면,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됐다 풀려나'처럼 심표로 주어를 밝혀 사실 관계를 분명히 하고, 조사와 어미를 가급적 자르지 않고 '문장답게' 표현할 것이다. 25자 안에 정보를 될수록 많이 집어넣어야 하는 고충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더라도 자르지 않을 것까지 모두 잘라 불구로 만드는 것은 곤란하다.

### 3. 한자어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뉴스 자막에 한자어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한자어를 쓰면 긴 문장을 짧게 압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자어가 많으면 문장이 어려워지고 딱딱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검찰, 유병언 일가 은닉 재산 확인 계속 방침'보다는 '검찰, 유병언 일가가 숨긴 재산 계속 확인한다'가 훨씬 부드럽다. '은닉 재산'보다는 '숨긴 재산'이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이다.

글을 쓸 때는 어려운 말보다 쉽고 익숙해진 말을 골라 써야 한다. 뉴스 자막도 마찬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자칫 대형 사고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것을 일깨워 주는 자막 사고가 이른바 '언니 사건'이다. '언니 사건'이란 2010년 1월 KBS가 인도네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을 보도하면서 '언니 100명 태운 여객기 실종'이란 자막을 내보낸 것을 말한다. 인도네시아의 줄임말 '인니'를 '언니'로 잘못 적어 버린 것이다.

[그림 1] 2010년 1월 KBS 뉴스 자막



‘인니’란 사실 방송 용어는 아니다. 신문 편집자들이 한정된 공간에 제목을 달기 위해 프랑스를 ‘불(佛)’, 이탈리아를 ‘이(伊)’로 적듯이, 인도네시아를 ‘인니(印尼)’, 말레이시아를 ‘말련(馬聯)’ 등으로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구세대 신문 편집자들이 쓰던 습관이고 요즘 편집자들은 잘 쓰지 않는다. ‘인니’, ‘말련’을 알아듣는 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뉴스 자막 작성자는 자수가 줄어드는 것에만 착안해서 보편성을 잃은 말을 쓰다 사고를 낸 것이다. 어찌면 이 사고는 선임 피디(PD)가 원고에 적어 준 ‘인니 100여 명 태운……’을 신세대 피디나 에이디(AD)가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언니 100여 명 태운……’으로 바뀌 적었을지도 모른다.

#### 4. 주어야 주어야, 어디 갔느냐?

문장이란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성립된다. 이 두 기둥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식어와 피수식어, 목적어 등이 달라붙어 하나의 문장이 된다. 그래서 주어를 문장의 필수 성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생략해도 문제가 없을 때, 또는 생략하는 편이 더 나을 때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 어떤 이는 이런 기준은 일반적인 글을 쓸 때만 적용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뉴스 자막에서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5자로 함축되어 있을 뿐이지 자막도 엄연한 문장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자막에서는 자수 제한 때문에 불필요하다 싶은 것을 함부로 잘라 버린다. 주어 없는 뉴스 자막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뉴스의 성격상 주어가 궁금할 때가 있다. 또 문장의 구성상 주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자막 작성자들은 앞뒤 살피지 않고 주어를 잘라 버리곤 한다. 특히 ‘사람들(인사) 코너’를 보면 그런 것이 많다. 예를 들어 보자.

‘총리 비서실장에 이석우, 국무조정실 2차장에 조경규 내정’

지난 8월 8일 자 B방송의 뉴스 자막이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답답하다. 대체 누가 그들을 내정했다는 것인가? 뉴스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총리 비서실장’이나 ‘국무조정실 차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만일 독자의 이런 고충을 예측하는 자막 작성자라면 ‘박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에 이석우, 국무조정실 2차장에 조경규 내정’이라고 적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글

자 수가 넘쳐 도저히 안 된다면 차라리 ‘박 대통령’과 ‘내정’을 빼고 ‘총리 비서실장에 이석우, 국무조정실 2차장에 조경규’라고 하면 된다.

## 5. 긍정어보다 부정어를 앞세우면

‘박 대통령 지지율 46%…두 달 만에 부정평가 앞질러’

지난 8월 8일 자 D방송에서 내보낸 뉴스 자막이다. 이 자막을 보는 사람도 혼란스러울 것이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는 것인지,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질렀다는 것인지 언뜻 보아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뉴스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후자인 것을 직감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자로 볼 가능성이 많다.

만일 이것을 ‘박 대통령 지지율 46%……두 달 만에 긍정평가 많아져’ 처럼 부정어(부정평가)를 숨기고 긍정어(긍정평가)를 드러낸다면 어떻게 될까. 틀림없이 사람들은 0.1초 내에 의미를 파악할 것이다. 이처럼 부정어보다 긍정어를 앞세우면 소통이 빨라지고 문장이 밝아진다. 이것은 단지 문장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인간사 모든 것이 다 그럴 것이다. 좀 긴 문장을 보자.

신문이 독자들의 신뢰를 잃어 온 데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 왜곡도 마다하지 않은 자의적 글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그도 모르는 않을 것이다.(《한겨레》, 2006년 12월 19일 자.)

이 문장은 대부분이 '아니다' 즉 부정어로 되어 있다. '신뢰를 잃다', '사실 왜곡', '마다하지 않은', '자의적 글', '적지 않은', '모르지는 않을'이 모두 부정어다. 더구나 '마다하지 않은', '적지 않은', '모르지는 않을'은 이중부정어다. 아마도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래서 그의 주장이 강하게 전달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부정어를 지나치게 많이 써 오히려 문장이 어려워지고 어두워졌다고 본다. 부정어는 한두 곳에 집중해야 효과가 있다.

## 6. 감정이 지나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이제 방향을 약간 돌려 자막 작성자의 심리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자.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뉴스 자막을 만드는 일은 꽤 재미있는 일에 속한다.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지만, 방송사 네트워크를 통해 세상 뉴스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고, 그중에서 내가 원하는 뉴스를 내 맘대로 골라 올린 것이 즉시 전파를 타는 것을 보면 매우 흥미진진하다. 그러나 이런 재미 때문에 자칫 편향성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내 귀는 가끔씩 근질거릴 것이다.

더 쉽게 말하자. 만일 내가 '박 대통령 지지율 46%...두 달 만에 긍정평가 많아져'가 더 쉬운 표현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박 대통령 지지율 46%...두 달 만에 부정평가 앞질러'란 자막을 내보냈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편향성을 가진 자'라고 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자막 작성자들은 늘 글자로 마술을 부리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것은 엄청난 사고로 귀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명박 사건'을 돌이켜 보자.

[그림 2] 2008년 4월 MBC 뉴스 자막



‘이명박’ 사건이란 MBC가 2008년 4월 <뉴스24>를 방송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북한의 위협적 발언 때문에 북한과 협상하는 일 없다”라는 자막을 내보내 문제된 사건이다. 국가원수 이름을 ‘명’으로 적어 ‘명명’을 연상시켰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였다. 같은 방송에서 다시 ‘이명박 대통령, “개방 통합 민영화로 금융산업 경쟁력 높이고…”’란 자막을 내보내 버렸다. 두 오류를 합치면 ‘명명이가 으르렁대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그렇다고 자막 작성자가 일부러 오타를 내



정권에 항변했을 리는 없다고 본다. 지금이 일제 강점기도 아닌데 실익(實益)이 없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가지’를 걸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같은 뉴스에서 연거푸 편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오타를 내보냄으로써 자막 작성자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는 오해를 받기에는 충분하다.

사실 내가 남의 방송사 사고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못 된다. 우리 자막 팀에서도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13일에 있었던 ‘안철수 귀화’ 사건이 그것이다.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안현수’(러시아 명 ‘빅토르 안’)를 ‘안철수’로 잘못 적어 ‘朴 대통령, 안철수 귀화 부조리 탓인지 되돌아 봐야란 큼지막한 자막을 내보내 버린 것이다. 정말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큐시트(방송 대본)에 계속 ‘안현수’가 ‘안철수’로 등장해 부조정실에 경고사인까지 했는데도, 순간적으로 ‘안현수’가 ‘안철수’로 나가 버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도국 여기저기에서 고함 소리가 들린다. “뭐야! 뭐야!! 내려 내려!!” 그러

[그림 3] 2014년 2월 TV 조선 뉴스 자막



나 이미 빛의 속도로 날아간 전파를 되돌릴 수는 없다. 이 정도 사고면 어김없이 포털에 구구한 해설이 곁들여진 사진들이 올라온다. 사내에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7. 자막 문장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이제 줄고를 정리할 차례다.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디스플레이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곳곳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한 방송 경쟁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다. 사람들의 넘치는 정보 욕구가 방송 경쟁을 불러온 측면도 있다. 옛날 같으면 앵커가 읽는 뉴스 하나만으로 족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보면서 별도의 뉴스를 보기 원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을 충족하기 위해 외국의 방송국에서는 자막을 두 줄로 내보 내기도 한다. 윗줄에는 일반 뉴스를, 아랫줄에는 경제 뉴스를 흘리는 식이다.

어쨌든 뉴스 자막이 국민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하다. 그런데도 자막에 대한 담론은 별로 없다. 방송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자막 문장에 대한 지침도 없다. 내가 방송국에서 일하는 2년여 동안, 뉴스 자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국어 단체나 언론 단체가 있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도 없다. 모두가 무관심인 것이다. 이로 인해 국어가 망가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어미 단절로 인한 우리말의 명사화 경향’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 자막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다.